

# 코로나19에 55~79세 '고령층' 실업률 역대 최대

통계청,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

고용률 55.3%로 1년 전보다 0.6%p ↓...2018년 이후 하락  
65~79세 10명 중 4명 취업자...3명 중 1명 단순노무 종사  
55~79세 실업률 3.8%...2005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대  
55~64세 평균 근속기간 15년7개월...男, 女보다 7년 길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55~79세 고령층 고용률이 2년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실업률은 2005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65~79세 고령층 10명 중 4명은 은퇴하지 않고 여전히 일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3명 중 1명은 단순 노무 종사자로 근무했다.

통계청이 28일 발표한 '2020년 5월 기준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55~79세 고령층 인구 1427만1000명 중 취업자는 55.3%인 789만 5000명으로 1년 전보다 0.6%포인트(p) 하락했다. 2018년(55.2%) 이후 2년 만에 내림세로 돌아선 것이다.

55~64세 고용률은 66.9%로 전년 동월 대비 1.0%p 하락했지만

65~79세 고용률은 40.4%로 0.3%p 상승했다. 지난 5월 '고용 동향'을 보면 코로나19 영향으로 60대를 제외한 전 연령층의 고용률이 하락한 바 있다.

정동욱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55~59세 중심으로 고용률이 많이 나빠졌다"면서 "코로나19 확산으로 도소매·음식숙박업 등 대면 서비스업 중심으로 영향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55~79세 실업률은 3.8%로 집계됐다. 이는 2005년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를 작성한 이래 가장 높은 수치다. 55~64세 실업률은 3.9%로 1년 전보다 0.8%p 상승했다. 65~79세 실업률 또한 1년 전보다 1.1%p 오른 3.6%를 보였다.

지난 5월6일 사회적 거리 두기가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전환됨에 따라 구직 활동이 늘어나면서 실

업률 또한 상승했다고 통계청은 설명했다.

취업자의 산업별 분포를 보면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이 37.1%로 가장 높았으며 도소매·음식숙박업(19.2%), 농림어업(13.7%) 순으로 나타났다.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은 0.7%p 상승했지만, 도소매·음식숙박업은 0.6%p 하락했다.

직업별 분포를 보면 단순 노무 종사자(24.0%)가 가장 많았으며 서비스·판매종사자(23.0%), 기능·기계 조작 종사자(21.4%)가 뒤따랐다. 55~64세는 서비스·판매종사자(25.5%), 기능·기계 조작 종사자(24.7%), 단순 노무 종사자(19.0%) 순이었으나 65~79세는 단순 노무 종사자가 34.6%로 가장 많았다. 이어 농림어업종사자(23.8%), 서비스·판매

종사자(17.7%) 순이었다.

생애 동안 취업 경험이 전혀 없는 55~79세 인구는 48만9000명(3.4%)으로 이 중 여성이 95.9%(46만9000명)를 차지했다. 취업 경험이 있으나 현재 미취업인 55~79세 인구는 588만8000명(41.3%)이었으며 이 가운데 여성이 361만2000명(48.3%)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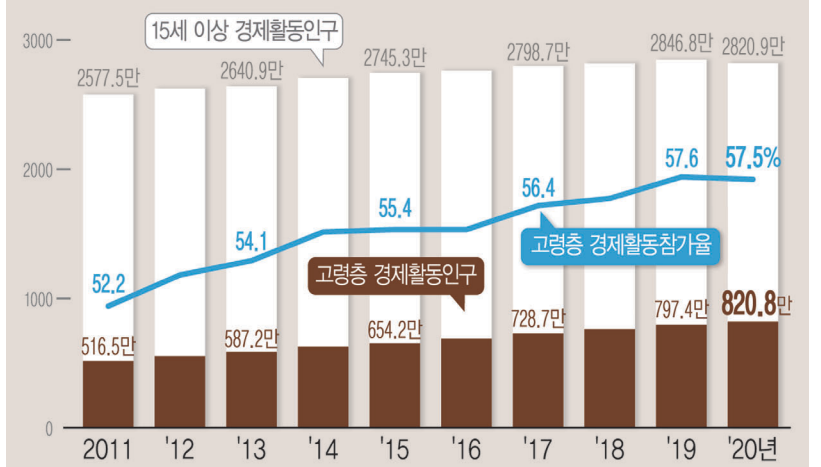
55~64세 취업 유경험자의 생애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의 평균 근속 기간은 15년 7개월로 전년 동월보다 1.3개월 증가했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19년 3.2개월로 여성(11년 9.8개월)보다 평균 근속 기간이 7년 5.4개월 더 길었다.

근속기간대별로 보면 10~20년 미만 근속 비중이 30.0%로 가장 컸으며 30년 이상 근속 비중은 17.0%를 차지했다. 성별로 보면 여성은 5년 미만 근속 비중이 23.1%로 남성(15.6%)보다 많았다. 반면 30년 이상 근속 비중은 남성이 24.6%인 반면 여성은 9.3%에 그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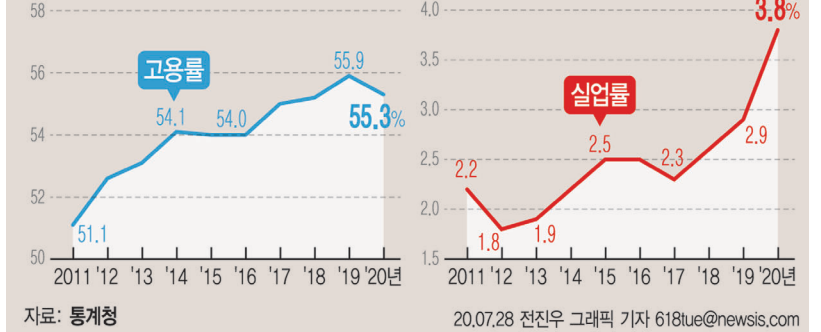
산업별로는 농림어업이 25년 8.5개월로 가장 길었으며 직업별로는 농림어업종사자(26년 9.7개월)로 최장기간이었다.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를 그만둔 사람 499만7000명 중 현재 취업 중인 자는 252만3000명으로 50.5%를 보였다.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를 그만둔 당시 평균 연

고령층 경제활동인구 추이 (단위: 명, %) 고령층 55~79세, 5월 기준



고령층 고용·실업률 추이 (단위: %) 5월 기준



령은 49.4세로 1년 전과 같았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51.2세, 여성은 47.9세에 그쳤다. 그만둔 이유는 사업부진·조업 중단·휴업·폐업이 남성과 여성 모두 38.6%, 28.3%로 가장 많았다. 이를 제외하면 남성은 권고사직·명예퇴직·정리해고(18.6%), 여성은 가족을 돌보기 위해서(25.2%)가 가장 많았다. 뉴스시



순금 1돈 소매가격 30만원 돌파  
순금(24K) 1돈 소매가격이 30만원을 돌파한 28일 서울 종로구 한국 금거래소 본점에서 직원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2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53분 기준 금 현물의 1g 가격은 전날 대비 328원(2640원) 오른 8만원을 기록 중이다.

## 코로나에 6월 수출물량 1.4% ↓... "낙폭은 축소"

6월 수출지수 석달째 하락  
수입물량지수 6.1% 상승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6월 수출물량지수가 하락세를 지속했지만 낙폭은 크게 줄었다.

반도체 설비투자 확대 등의 영향으로 수입물량지수는 석 달 만에 상승 전환했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6월 무역지수 및 교역조건'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물량지수는 104.74로 전년동월대비 1.4% 하락했다.

다만 낙폭은 4월 -13.2%, 5월 -15%까지 확대됐다가 지난달 -1.4%로 크게 축소됐다. 한은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세와 국제유가 하락 등의 영향으로 지수가 하락했지만, 하락폭이 상당히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 등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 수출물량이 전년동월대비 7.9% 늘어 두 달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반면 자동차 등 운송장비는 35.3% 줄어 4월(-39.5%)부터 석 달째 내림세를 지속했다. 국제유가 하락 등의 영향으로 석탄 및 석유제품도 11.6% 감소했다. 섬유 및 가죽제품(-19.2%), 전기장비(-6.4%), 제1차 금속제품(-4.2%) 등도 줄줄이 하락했다.

수출금액지수는 92.64로 전년동월대비 10.5% 하락했다. 지난 3월부터 넉 달 연속 하락세다.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 수출금액이 1.9% 증가했으나 석탄 및 석유제품이 46.7% 급감한 여파다. 운송장비는 36.6% 떨어졌고, 섬유 및 가죽제품도 22.8% 하락했다. 수입물량지수는 전년동월대비 6.1% 상승했다. 지난 3월 이후 석

달 만에 상승세로 돌아선 것이다. 반도체 설비투자 확대 등으로 기계 및 장비 수입물량이 26.4% 늘고, 의약품 등 공산품 수입물량이 9.9% 증가했다.

수입금액지수는 11.6% 하락해 석 달 연속 하락세를 지속했다. 기계 및 장비(27.2%) 등의 증가세에도 광산품(-50%), 석탄 및 석유제품(-43.2%) 등에서 감소세를 나타낸 영향이 컸다.

순상품교역조건지수는 전년동월대비 9.0% 상승해 석달째 개선세를 보였다.

지난달 수입가격이 16.7% 하락해 수출가격(-9.2%)보다 더 큰 폭 떨어진 영향이다. 순상품교역조건지수가 올라간 것은 상품 1단위를 수출해 벌어들인 돈(달러 기준)으로 수입할 수 있는 상품의 양이 늘었다는 의미다.

김민정 기자

## 해외 '나홀로 근무자' 청약 1순위 자격 인정한다

국토부, 관련 시행규칙 입법예고 거쳐 9월중 시행

정부가 해외에 혼자 체류하고 있는 근무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주택 청약 1순위 자격을 인정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주택 청약제도 운영과정에서 이 같은 개선사항이 나타났으며 관련 제도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우선 해외근무자에 대한 우선공급 기준을 완화한다. 현재는 해외에 장기근무 중인 청약자에 대해 우선공급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예외적으로 해외근무 등 생업사정으로 인해 혼

자 국외에 체류한 경우(단신부임)에는 국내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해 우선공급 대상으로 청약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과거 2년 이내 계속해서 90일, 연간 누적 183일을 초과해 해외에 거주한 경우 해당지역에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 1순위 청약 자격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해외 근무자에 대해 청약 1순위 자격을 박탈하는 현 규정이 불합리하다는 불만이 끊이지 않았

다. 정부는 또 신혼부부 특공 자격 요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는 혼인신고 이전 출생자녀를 둔 신혼부부에게 1순위 자격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

국토부는 앞으로 민법 제855조 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 혼인기간 중 출생한 자녀로 인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협의양도인 특별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개발제한구역 내 택지개발사업 및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협의양도인에 대한 특별공급 규정이 있으나 공공주택사업은 관련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신봉우 기자

## 비말차단 마스크 생산량 증가 '최고'...가격 26% ↓

7월 4주 1억6883만개 생산...전 주 대비 13.4% 증가



여름철, 비말차단 마스크의 생산량이 보건용(KF) 및 수술용(텐탈) 마스크 보다 훨씬 크게 증가돼 높은 수요를 반영했다. 온라인 판매 가격은 공급이 본격화된 6월 4주보다 26% 떨어졌다.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공적마스크 제도 종료 2주째인 7월 4주(20~26일) 마스크 생산량은 1억6883만개, 3주(1억4883만

개) 보다 2000만개(13.4%) 가량 늘었다. 정부는 지난 12일 마스크 공급을 '시장형 수급관리 체계'로 전환했다.

이 중 보건용 마스크는 8948만개에서 9490만개로 6.1%, 비말차단용 마스크는 5484만개에서 6926만개로 26.3%, 수술용 마스크는 451만개에서 467만개로 3.5% 늘었다. 지난 2월 통계를 작성한 이래

가장 많은 물량을 생산했다. 특히 하루 생산량은 공급체계 개편 직전인 지난 10일 1976만개에서 24일 2724만개로 2주 만에 크게 증가했다. 같은 날(24일) 생산한 비말차단용 마스크는 1193만개로 전체 마스크 생산량의 약 44%를 차지했다.

현재 공적 공급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수술용 마스크'의 의료기관 공급량은 7월 4주 387만개로 집계됐다. 3주 319만개 보다 21.3% 늘었다. 마스크 가격은 통계청 조사 결과, 2월 이후 전반적인 안정세에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건용 마스크(KF 94)의 온라인 판매가격은 2월 4주 4221원에서 7월 4주 1644원으로 크게 하락했다. 7월 4주 판매처별 가격은 약국 1590원, 마트 1967원으로 조사됐다.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는 공급이 본격화된 6월 4주 1145원에서 7월 4주 850원으로 온라인 판매가격이 26% 하락했다. 약국, 마트는 각 756원, 684원을 유지하고 있다.